

## 광주·전남도민과의 대화

국민통합 중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균형발전, 광주는 문화 경쟁력을 가진 도시

반갑습니다. 광주에 올 때마다 제 고향보다 더 고향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. 여러분들이 항상 따뜻하게 환영해주어서 그렇습니다.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분 표정에 제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지지를 한 도시라는 자량이 배어 있습니다. 그리고 ‘빛 쬐지. 빛 갇아야 돼.’ 이런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런 표정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느낍니다. 그래서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곳이 광주입니다.

제 소망은 국민통합입니다. 국민통합 중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균형발전입니다.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사회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.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집중현상입니다. 균형발전 실현이 제 목표 중 가장 큰 목표입니다. 그것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광주문화중심도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
앞으로 아시아 문화도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광주는 세계 일류 문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.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. 문화가 밥 먹여 주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문화자체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됩니다. 자동차 시장, 조선시장 다 합한 것 보다 더 큰 시

장이 문화 콘텐츠 시장입니다. 그래서 문화 경쟁력을 갖추면 세계 전체 경제시장에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가장 큰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한번 먹어 봅시다.

그렇게 하면 광주와 전남이 가장 큰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. 조선소 하나, 자동차 회사 하나, 반도체 회사 하나 그것보다 더 큰 잠재적 시장을 가진 문화 산업 분야에 광주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제 임기 5년 동안 바로 열매를 딸 수는 없지만 나무를 심고 뿌리를 탄탄히 세우고 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기초를 다져 놓겠습니다.

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. 문화의 전당하나 확정이 됐지만 더 많은 것은 함께 의논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. 함께 의논해서 그릇을 만듭시다. 그릇을 만들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. 그 동안 많은 기여를 한 광주전남이 앞으로 어떻게 든 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.